

# 소방안전교육



# 진행순서

---

- ⌘ 화재발생시 행동요령
  - ⌘ 화재신고요령
  - ⌘ 피난유도요령
  - ⌘ 대피요령
  - ⌘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경우 행동요령
  - ⌘ 소화기 사용요령
  - ⌘ 옥내소화전 사용요령
-

# 화재발생시 행동요령

- ❖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,
- ❖ 즉시 소화기,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소화 작업에 임해야 한다
- ❖ 이때, 불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며,
- ❖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방서에 지체없이 신고하고,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피해야 하며, 연소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여야 한다.

# 화재 신고요령

화재를 당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 하게 되어 신고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많았는데, 화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.

- #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발견자는 큰소리로 "불이야"를 외치거나,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,
- #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, 주소,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,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침착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에 유사시를 예상한 마음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.



# 화재 신고요령

- # 또,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기 가까운 곳에 집주소나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등을 적어서 부착시켜 놓고 유사시 이것을 보고 신고하면 효과적이다.



# 피난유도요령

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호텔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, 건물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 화재시에는 그 건물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 함.

-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피난계획 수립(Learn Not To Burn)
-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와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실시
- 건물 내부에는 두 개 이상의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유사시 충분히 활용할 수 조치
- 피난 유도시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

# 대피요령

화재로 인한 사망중 60% 이상이 화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달기도 전에 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망이고, 약 20% 정도만이 소사(燒死)하며, 나머지는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.

- 문에 손을 대어본 후 만약 문밖에 연기와 화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쪽의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(BackDraft현상)



# 대피요령

-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
- 고층 건물이나 복합, 지하상가 화재시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





# 대피요령

- 피난시설 및 피난기구 없이 아래층으로 대피할 때는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가고, 이때 커튼등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매듭을 묶어 손의 열상을 방지



# 대피요령

---

- 아랫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고, 바람을 등진 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.
- 불가피하게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 쓰고 대피한다.
- 고층건물 화재시 엘리베이터는 화재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금지

#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경우 행동요령

---

건물 내에 화재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 
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 
보다는 건물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 
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.



#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경우 행동요령

- 연기가 새어 들어 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담요나 타올 등에 물을 적서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한다.



#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경우 행동요령

일단 실내에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 등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.



#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경우 행동요령

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 
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킨다.





#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경우 행동요령

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하면서,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, 창 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.



# 소화기의 필요성

- 화재는 발화 후 최초 3분이 가장 중요
- 유류, 전기등 물로 끌 수 없는 화재에도 적응성이 탁월
- 화재초기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수행



# 소화기 사용요령

- ★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이동
- ★ 안전핀을 분리(손잡이의 아래부분을 잡고 당기면 편리)
- ★ 소화기를 오른손으로 들고 호스를 왼손으로 잡고
- ★ 바람을 등진채 손잡이를 힘껏 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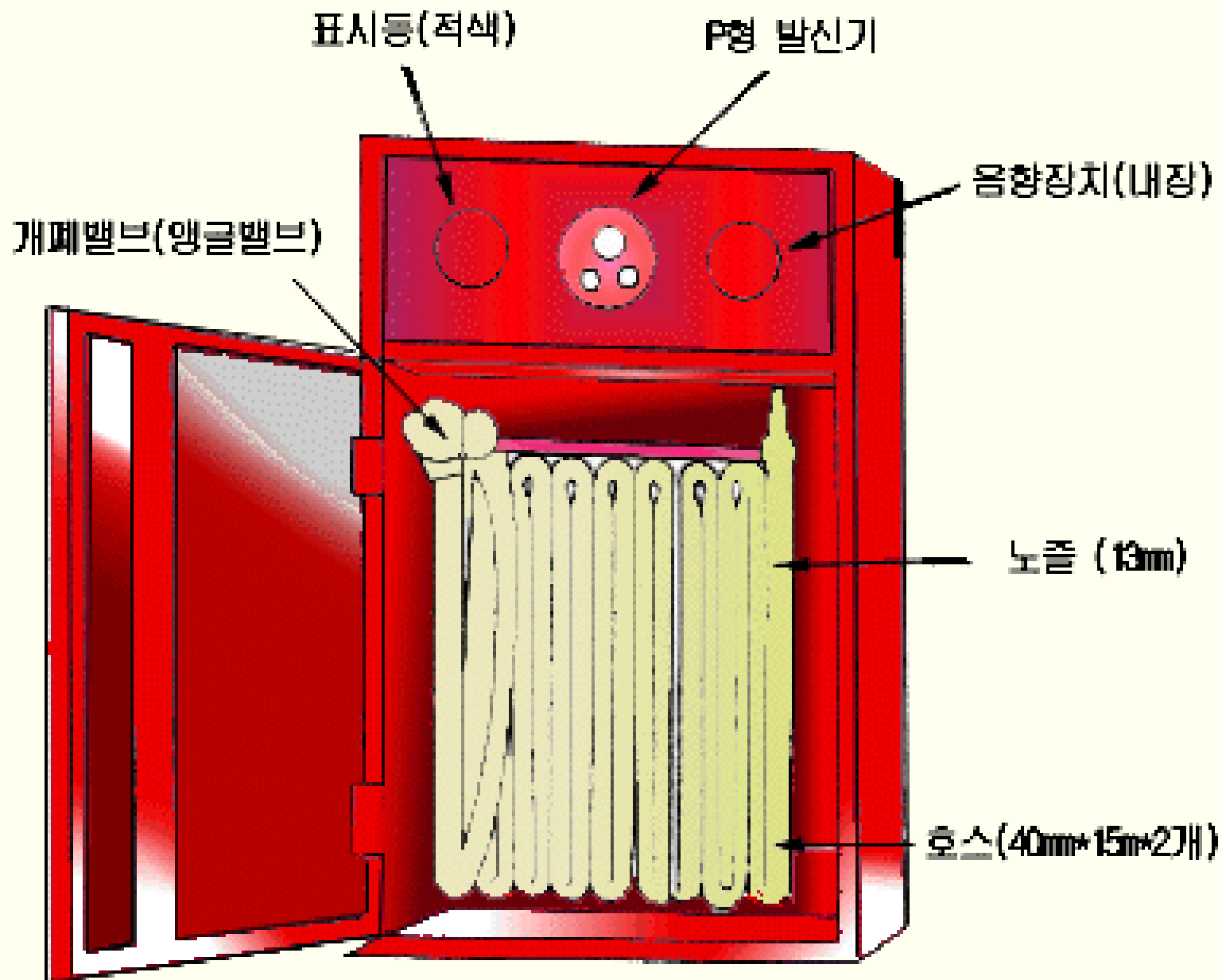


# 옥내 소화전

---

화재발생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압에 실패할 경우 활용가능한 소화설비로,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

- 수동기동방식(On-Off)
- 자동기동방식(기동용 수압 개폐방식)



목 내 소 화 전 함

# 옥내 소화전 사용요령

---

- ★ 화재시 최소 2명이 1조가 되어 조작
- ★ 초기화재 진압에 실패하여 유독성 연기가 많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



# 옥내소화전 사용요령

옥내소화전 함을 열고 소방용 호스와 방사 관창(노즐)을 꺼낸 후, 1명은 노즐과 호스를 들고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이동



# 옥내소화전 사용요령

수동기동 방식인 경우,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동스위치를 누른 후, 방수구(개폐 밸브)의 핸들을 회전시켜 완전히 개방하여 물이 방수되도록 한다.(나머지 1명)

밸브를 완전히  
개방한다. (규정수압을  
얻기 위함)



# 옥내 소화전 사용요령

방수시 반발력에 의해 노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,  
나머지 1명은 노즐을 잡고 있는 사람과 함께 진압작업을 실시





# 옥내소화전 관리요령

---

- 옥내소화전함 앞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.
  - 호스는 지그재그 형태로 꼬이지 않도록 잘 감아 보관한다.
  - 옥내소화전함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호스에 물이 들어있지 않도록 주의한다.
  - 호스는 건조 후에 원래의 위치에 보관한다.
-

# 교육의 요점

---

화재나 각종 안전사고시 흥분할 경우  
패닉현상이 발생하며, 상황이 더욱 악화되므로  
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.

수고하셨습니다.

---